

지방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정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1028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사의 비간부직(4급 이상)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혁신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143개 공사·공단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올해에는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하수도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혁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올해 10대 추진과제는 ▲2단계 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 ▲규제개혁 ▲성과연봉제 확대 ▲경영구조개편 ▲구조개혁 추진 ▲남설방지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확대 ▲경영평가 실효성 제고 등이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는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

4급 이상 직원 대상 실시 상·하수도 등 책임경영도

혁을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처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130%로 감축한다.

제도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실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공기업의 행태와 내부규정 등 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민생적자인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분야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상·하수도는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저조한 기업성, 낮은 요금 현실화, 순환 전보로 인한 직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와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등 지자체 자율적으로 경영

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모든 공사·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또 143개 모든 공사·공단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비간부직(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 연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직급별 호봉데이블을 폐지하고, 기본급과 고정적·임플적으로 지급됐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상하위 등급자간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평균 2%p(±1%p) 이상, 등급은 5개 이상 차등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 된 성과연봉지급률을 곱해 지급하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성주 기자



우리집 안전지킴이

LG유플러스는 3일 오전 본사 1층 IoT체험관에서 현관문 앞 방문자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 서비스 '도어캠' 출시를 기념해 홍보모 델과 함께 사진 행사를 갖고 있다.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수 진작 방안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 6일 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켜 상

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이용 시 단말기에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실제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개공, 임대아파트 입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 나서

운동기구 설치·작은영화관 운영 등 지원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간 커뮤니티 모임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 등 지자체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공모, 4개 단지의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단지와 사업은 전주 평화지안리2 운동기구 설치(전주시 1,000만원), 전북혁신 에코리1단지 문화프로그램 운영(완주군 1,732만원), 전북혁신 에코리2단지 문화공감프로젝트 in the eco(완주군 1,353만원), 전북혁신 에코리3단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완주군 3,430만원) 등이고 총 6,500여만원의 교부금을 지원받는다

현재 전북혁신에코리 2단지에서는 단지 내에서 작은영화관을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 지리적 여건상 도심과 멀어 문화적 혜택이 다소 부족한 입주민들에게 최신 영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문화적 커뮤니티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인근 혁신에코리 1단지, 3단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요가교실, 에어로빅 교실, 핸드메이드 공예교실, 오키나와 약기 교실, 동화구연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단지별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지자체 협조로 신간도서를 기증받아 작은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전북혁신 에코리2단지 '오키나와 약기교실'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화합교류, 완주군민의날 연주, KBS전주 아침마다 출연 등 각종 행사에 초대될 정도로 전문성이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익산지역 배산에코리는 단지 내 어린이를 위한 '키즈 물놀이 공원'을 하절기에 운영,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규모와 시설은 워터파크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입주민들의 반응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단지별 우수 커뮤니티 운영사례는 연말 관리사무소 워크숍을 통해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입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는

나날이 늘어나지만 입주민간 이웃사촌 문화는 사라져가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사라져가는 이웃사촌 문화를 회복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김제우체국과 협약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미래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을 널리 홍보하고자 3일 김제우체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IT '새만금 우표' 및 맞춤형 엽서 를 공개하였다.

새만금 우표는 시트형 우표(우표6장, 사진1장)로 새만금방조제 및 내부 개발사업에 대한 미래 국제관광도시의 테마별 이미지로 구성되었으며 맞춤형 엽서는 신시배수갑문 및 준공기념담 사신이 담겨있다. 특이한 점은 스마트폰으로 우표와 엽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새만금사업 홍보동영상을 볼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전북은행 효(孝) 콘서트 성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일 전북은행 본점 21층 구내식당에서 '2016 어버이날 효(孝) 콘서트'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도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지역은행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매년 '효(孝)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전북은행은 임직원들이 직접 행사장을 찾은 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케이크 선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사회적기업 문화포럼 내내레를 초청하여 퓨전국악 공연을 열고 손수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오병진 부행장은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펼쳐며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은행, 최대 80% 환율 우대

'SMART 가족애(愛) 환전 이벤트'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이달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해외여행객을 위해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SMART 가족애(愛)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가족애(愛)환전쿠폰' 소지자(개인고객)는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환전시 1일 미화 100불에서 3,000불까지 쿠폰을 제시만해도 최대 8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쿠폰을 다룬받는 방법은 전북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인 '뉴스마트뱅킹'을 설치후 쿠폰활용서 확인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수 기자

호남통계청, 해양수산 통계 전문용어 해설집 발간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백만기)은 3일 해양수산 통계관련 전문용어 해설집인 '재미있고, 유익한 수산물 이야기'를 발간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할인 전북, 전남, 제주 등도 지리적 특성상 바다에 기대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어업관련 통계업무의 비중이 전국 대비 43.6%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은 어업통계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80여가지의 재미있는 수산물 이야기와 250여개의 해양수산 통계관련 전문용어를 쉽게 풀이한 해설집을 발간하게 됐다. /신광영 기자